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0년 8월)

<b>일시</b>	2020. 8. 20. 목. 오후 5시	<b>장소</b>	회의실
<b>참석자</b>	<b>위원회</b>	강부원, 고미아, 김요수, 김태진, 김형순, 류한호, 박미자, 이묘숙, 임철원, 조숙경, 최선희, 최영태(12명)	
	<b>회사</b>	송일준 사장,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조현성 보도국장,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이선우 기획심의부장(6명)	

### ■ 회의 내용

- 이선우 기획심의부장 :: -15명 중 12명 참석하셔서 과반수 성원이 됐다. 지금부터 광주 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코로나, 무더위 수해 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 MBC도 수해 보도, 코로나 보도로 굉장히 바빴다. 최근에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행사를 MBC가 특별 방송식으로 생중계하고 또 녹화 중계해서 지난주 많이 바빴을 것이다. MBC 노고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건강하시길 빌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다.
- 송일준 사장 : -지난번 서면으로 대체해서 시청자위원회를 쉬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회의를 하게 됐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수해와 코로나가 겹쳤다. 특히 방송사는 아시다시피 경영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영방송사로서 광주MBC가 해야 할 일은 또 열심히 해야 지역민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님들 중에 지난번 수해 났을 때 광주MBC 수해 피해 방송 더 열심히 해라 문자도 주고 하셨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열심히 했다. 김대중 서거 11주기도 생방송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우리 지역의 훌륭한 위대한 정치가와 관련된 선양, 기억 이런 것을 위해 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자마자 광주MBC는 5.18 콘텐츠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하나 추가해서 김대중 대통령 콘텐츠의 허브 방송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정치가이고 대한민국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조차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유산이 많이 선양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5.18과 김대중이라는 콘텐츠는 광주MBC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콘텐츠의 허브가 되어야겠다고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다. 어렵지만 광주MBC가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걸 시청자위원 분들께서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업무 보고를 해달라.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부분조정이 이뤄졌는데 화요일 밤에 <100분 토론>, 목요일 <다큐플렉스>, 금요일 <시네마틱 드라마 SF8>, <나 혼자 산다 스피노프> 라디오 부분은 8월 10일자로 조정이 됐는데 평일 오후 6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이 신설

이 됐고, 로컬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는 프로그램의 효율화를 위해 당분간 폐지가 됐다. 실적으로는 코로나19 및 수해 관련해 TV,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방송했다. MBC 수해 특별생방송 전국 참여를 8월 12일에 참여했다. 김대중 평화주간 관련해 토크 콘서트 <민주를 말하다>를 녹화했고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편성할 예정이다. 김대중 서거 11주기 추모식 중계도 이뤄졌다. 향후는 <아시안 탐 밴드> 첫 경연 일정을 8월 29일 화요일부터 시작한다. 본사 프로그램인 트로트의 민족 광주 전남 예선은 이번 주 일요일 스튜디오에서 이뤄진다. 9월 3일 오후 2시에는 마한 왕도 나주 선포식을 직접 생중계할 예정이다.

- 조현성 보도국장 : -아무래도 가장 큰 뉴스는 기록적인 수해 소식이다. 광주천 범람 위기가 있었고 섬진강 제방은 무너져서 큰 물난리가 났다. 8월 7일 이후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관련 뉴스 내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8월 8일에 자체 재난방송을 실시했다. 서울 MBC 특보에 10여 차례 이상 참여했다. 광주MBC가 자체 재난 특보를 송출한 것은 12년 만의 일로 기억하고 있다. 더군다나 휴가기간도 겹쳤는데 다 복귀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 저희가 어차피 내보낼 수 있는 뉴스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흘림자막 말고 복대 자막을 요약해서 수시로 내보내는 노력을 통해서 인적 물적 한계를 보완하려고 했다. 이후에 구례, 곡성 수해 지역의 복구상황과 어려움을 집중보도하고 있다. 광주에 재난 안전지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집값 하락의 우려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었는데 몇 차례 보도하고 광주시에서도 공개하는 게 맞겠다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였고 8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됐는데 그 전후로 해서 계속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내고 있고,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을 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관련해 위원장님으로 계신 최영태 교수님이 작년부터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 40회 연속으로 라디오 방송을 했던 것을 영상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13편으로 재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김대중 평화주간 행사의 하나였는데 서거 11주기 관련해서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 마이크 센델 교수 화상 연결을 통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했다. 8.15 특집 다큐 지상파 제작도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장형두라고 조선의 식물학자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 식물학명을 우리 고유의 학명으로 만드는데 공헌했던 분이다. 이 관련해 30분 편성의 다큐를 저희가 프로듀싱해서 제작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광주MBC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만을 넘어서 실버버튼을 받았다. 8월의 주목할만한 콘텐츠로 <시사본색>에서 최강욱 의원이 출연했던 검찰개혁 내용인데 사회적 이슈 때문에 조회 수가 40만 회를 상회할 정도로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보도국에서 폭우 피해 관련해 보도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시청자 제보영상이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즉각 받은 내용들을 유튜브에 가공해서 올린 게 50만 회 이상 나올 정도로 진행했다. 아카이빙 콘텐츠 중에서 나훈아 공연 영상이 100만 회 가까이 나올 정도다. <얼씨구당> 진행하고 있는데 <풍류달빛공연> 지상파TV 제작용인데 재개를 하고, 디지털플랫폼과 쇼핑몰을 연계한 V커머스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인데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언택트 콘텐츠를 기획 중이다. 아카이빙 콘텐츠인데 트로트맛

집이 9만 5천 명 정도 구독자인데 다음 달 두 번째 실버 버튼을 받을 것이다.

-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 -8년째 하고 있는 꿈을 실은 독서열차가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축소하고 장소를 바꿔서 광주MBC 공개홀에서 했다. 규모는 축소가 됐지만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했고 만족도는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9월 있을 행사로 한양수자인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광주, 목포, 여수MBC가 공동 주최를 하고 MBC플러스의 도움을 받아서 올해 처음 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관건이지만 외부행사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 최영태 위원장 :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튜브 관련해 전화를 여럿 받았다. 지역방송이 전국화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것이구나 하고 실감했다. 13편으로 만들어줘서 감사드린다. 보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 없으면 위원님들 의견 들겠다.
- 강부원 위원 : -급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이 컸는데 그 원인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좋다. 김철원 기자가 섬진강 방류량과 관련해 방송을 했는데 참신했다. 다른 방송에서 이를 따라가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자체에서는 방류량이 기준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방류량 기준이 얼마였는지 내용 자체가 아예 안 나오니까 방류량 기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기준이 향후에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그래도 있다든지 이런 후속보도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실제로 다른 방송을 보니까 90% 정도는 수위량을 채우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마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 미리 방류를 했으면 크게 피해가 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MBC가 전국 방송 나오는데 다시 광주MBC 방송을 하면서 똑같이 또 나온다. 여러 내용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보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 고미아 위원 :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다. 17일에도 보도는 이어졌다. 부동산업체에서 부지구매를 하고 내년 6월 말까지는 용도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내용이었다. 광주의 중요한 역사의 흔적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유지라는 이유로 일반 부동산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의 시도가 참 좋았다. 광주시장의 생각과 대처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보도한 것에 대해 발 빠른 보도라고 보인다. 앞으로 MBC는 문제의 제기뿐만이 아니라 왜 이 장소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고층 아파트라는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광주시의 도시계획과 맞물려 가야 하는지 중요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장소라는 내용으로 중장기적이고 캠페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분명 사유지는 개인의 소유지다. 개인의 이익을 무조건적으로 누를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광주시의 정책적인 문제해결 인식과 방법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는 남겨지고 또 다른 역사성으로 활용되는 중요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이끌어 내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전문가들의 대담, 광주시의 정책적인 추진 방법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이들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끌어내는 방법, 시민들의 생각과 활용 방법 등을 방송이라는 미디어를 이용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 준다면 MBC가 건전한 광주의 발전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서가고 있는지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

어낼 수 있다고 고려된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건전한 방송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길 제언한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팩트를 얘기한다. 몇 명이 되고 어디에서 됐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케이스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다. 사실 조금은 더 디테일한 내용, 생활과 직결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지방방송이니까 지역에 맞게 다뤄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스마트미디어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에 의견 드린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의 환경과 교육을 2, 3일 나가고 다시 온라인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과 학교와 학생과 부모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체 틀의 입장에서 이번에 대상이 되는 부분에 어떤 피해가 있고 이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케이스바이 케이스가 대응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9시 뉴스나 시사채널이나 정규방송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더 가벼운 주제지만 디테일한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적극적인 취재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는 스팟이나 미디어적인 부분에 채널 하단에 카피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것인데 타이틀이나 정규방송뿐만 아니라 지역과 정규방송, 전국방송에서 내보낼 수 있는 타이틀과 지역에서 내보낼 수 있는 타이틀이 조금 다를 것 같다. 지역에 맞기 때문에 지역을 일부분 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통하는 미디어지만 사실은 나오는 카피에 대한 임팩트는 더 친밀감 있게 느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광주MBC의 미디어로서의 자리도 생활과 지역민과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요수 위원 : -강부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목인데 8월 12일 뉴스에 수해가 한참 보도됐는데 ‘장마에 성진강 댐 수위 끌어올린 수자원 공사’라는 꼭지가 있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구례 마을이 잠겼는지, 댐의 방류 조절이 실패해서 마을이 잠겼는지,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를 살펴보는 보도였다. 우리가 항상 주변에서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지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다. 불이익이나 잘못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도를 보면서 기자의 시각으로 다시 현상을 살펴주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아서 알려주는 일이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가 참 고마운 날이었다.
- 류한호 위원 : -8월 8일에 엄청난 폭우는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겪은 최대 규모의 자연재해였다. 이 지역이 그동안 자연재해로부터 매우 자유로운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크게 당했다. 그 때문에 시민의 안전의식도 많이 증대됐다. 여기에 대해서 광주MBC가 적극적으로 보도에 임해서 두 차례에 걸쳐 특집방송도 보내고 서울과 연결해서 10여 차례 현장 중계도 했다. 재난에 대해서 지역방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지역방송의 사명을 매우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걸 통해서 시민들은 재난 상황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와 대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앞으로도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은 발생을 막을 수 없지만 그 발

생에 대해서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줄이는 것,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광주MBC가 자체적인 재난상황에 대한 보도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아마 그 매뉴얼을 충실히 숙지하면 주말에, 연휴기간에 문제가 발생해도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 홈페이지와 연계가 되지만 특집방송을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언제라도 재검색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노력했던 기자들의 노력도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지역민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역언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8월 17일 광주시 재난안전지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뉴스는 제가 체크를 해보니 광주MBC 특종이다. 다른 신문이나 방송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 재난안전지도가 광주시에 있기는 한데 이 지도의 존재가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이 재난안전지도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보도했고, 내용도 상당히 부실하더라, 실제로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공개되어 있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는 것, 재난안전지도는 그야말로 위기상황에 바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명쾌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도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이 앞으로 시민들에게 재난안전지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 이요숙 위원 : -재난방송 관련이다. 8월 7일, 8일에 집중호우는 상당히 유례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MBC에서 굉장히 고생하셨다. MBC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을 때는 대응하는 게 아쉬웠다는 부분을 지을 수 없다. 모든 시청자가 MBC 채널에 고정돼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접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뭔가 위험에 노출됐을 때 정보를 얻고 싶을 때 계속 채널을 이동하게 된다. 이동하다 보니 각 방송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게 됐다. 타 방송사에서 저희 지역과 연계된 두 곳에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발 빠른 진행이 됐다. 한 방송사는 재난방송사라 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방송사가 2개라고 했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다. 특히 광주천 범람할 때 모든 방송사가 양동의 특수한 케이스를 찍고 있다 8월 7일 경우 저희 재단 사무실에서도 광주천이 보인다. 그런데 광주천에도 서울 만큼이나 다리가 많다. 학동이나 지원동은 이미 침수가 돼서 도로가 통제됐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가 없었다. 용봉동을 비롯해 침수 통제가 8개가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보도국 인원을 얘기할 수 없는 게 각 방송사에 시청자가 보내온 제보들이 즉각 화면에 노출이 됐다. 시청자에게 알릴 것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계속 앵커랄지 그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제보를 바란다는 멘트가 수시로 특보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었다. 그러면 왜 많은 시청자나 아니면 재난상황에 있어서 화면을 찍었던 일반 시민들이 MBC에 제보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도 한번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후에 우리가 재난이 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방송사 인원의 한계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시청자와 특히 유튜브를 많이 본다하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지상파 채널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역할에 더 충실하면 좋겠다. 애정이 지나치

다 보니 이것에 대한 답답함과 서운함이 들어가서 특히 휴가 기간을 맞게 된 8월에 폭영, 코로나 같은 난제가 많은데 보도는 누군가가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장점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리고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 있다면 지상파 화면에 같이 노출이 되면 좋겠다. 같은 화면을 MBC에서 여덟 번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다른 방송사로 채널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략적으로 좀 세련되게 카메라 워크도 하게 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좀 강하게 얘기했다.

- 최영태 위원 : -저도 마찬가지다. 보도국장이 10여 년 만에 재난특보를 할 정도로 MBC에서도 이번 홍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시청자가 느끼는 체감도와 좀 다르다. 제가 시청자위원 카톡방에다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보도국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공중파 방송과 SNS가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느꼈다. SNS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도하는데 방송에서는 정해진 스케줄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도에 차이가 있다. 방송사가 SNS를 강력한 경쟁으로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다.
- 고미아 위원 : -30, 40대 대부분이 SNS를 이용해서 뉴스를 접하고 공유도 많이 한다. 저희가 아무래도 시청자위원이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관점을 기존에 SNS를 쓰다가, 또는 포털이라는 PC 기반에 것을 쓰다가 뉴스를 좀 보게 되었다. 사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자체는 30~40대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사적이고 좋은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하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접하게 되면서 좋은 것들,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 같다. 8월 16일은 행정부시장이 직접 나와 수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예산이 이미 70% 정도 쓰여졌지만 거기에 어떤 정도의 금액이 남아서 거기에 더해서 광주시민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직접 말씀해줘서 굉장히 신뢰가 됐다. MBC 위상에 대한 것도 믿음이 가는 대목이었다. 그런 부분에 안심하게 해주는 영상들과 대담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 내용에 대한 부분에도 4대강에 대한 지적, 댐 수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알지 못했던 지식, 재난안전지도라고 하는, 물론 나온 분의 잠깐의 이야기일 수 있으나 알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 알게 돼 새로운 것에 대한 니즈, 아 광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지도가 필요하겠구나, 시민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시청이나 아니면 직접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 물꼬리를 터준 부분도 내용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시사저널이 아무래도 채널 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사채널을 보는 나이가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알찬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기 바란다. 전문가가 나와서 여러 가지 정보와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린뉴딜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여러 가지 정책 이야기가 거론이 됐다. 일반적인 이용자에게는 난이도가 있는 단어일 수 있겠지만 뉴스를 접하거나 신문을 많이 보는 사람은 중심이 되는 정책에 대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해도가 힘든 내용이나 단어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효과나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텍스트나 여러 가지 이미지로 시각화를 보조

적으로 해준다면 조금 더 편리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

- 김형순 위원 : -저도 같은 날짜에 <김낙곤의 시사분석>을 봤다. 광주 전남 수해상황 보고대책을 주제로 광주 행정부시장과 이재원 사회부장이 나와 토론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주제 선택이었다. 그런데 초청된 사람을 보면 광주보다는 전남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전남도의 관계자는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광주 얘기만 계속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수해지역은 전남지역이 많은데 언급이 기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섬진강과 영산강의 수위조절, 강에 대한 관리는 광주에 있는 영산강환경유역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게 섬진강이나 영산강의 수위조절이 적절했느냐,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대응하고 개선해야 하는가 차원이었다면 영산강환경유역청의 담당자가 나와서 같이 그 상황을 토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면 훨씬 패널로 구성이 짜임새가 있었겠다. 후반부에 김준하 지스트 교수가 나와서 지구온난화 그린뉴딜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지구온난화나 그린뉴딜이라는 장기적인 문제보다는 당장 피해복구와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더라면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지구화온난화, 그린뉴딜은 다른 쪽지로 시간배정을 했으면 좋은 테마가 되색되지 않고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이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 최선희 위원 : -16일 방송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는 대안책만 말씀드리겠다. 이를 테면 목포MBC, 여수MBC가 각각 있기 때문에 <김낙곤의 시사분석>을 얼마만큼 시청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8월 16일날 방송했던 그 내용은 분석과 탐구를 구분하지 않고 한 시간짜리로 형평성에 맞는 행정책임자, 시에 부시장이 왔으면 도에 부지사가 오든지 이런 방법처럼, 재난에 대한 컨트롤박스가 등장하는 게 맞겠다. 사회부 이재원 부장이 아주 잘 설명도 하고 내용을 잘 다뤄주긴 했는데 행정책임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하다가 정치쪽의 당의 해석을 돌려서 말한다든지 이게 좀 왔다갔다 했다. 시청자가 보기엔 굉장히 대응은 잘해서 도에서 오기가 힘들겠구나 감지는 했다. 수해대책 세우고 하기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은 갔다. 그러면 대화 내용을 다르게 가든지 해야 하는데 본인이 사회부장 입장에서 얘길 하면서도 다시 질의를 광주 부시장에게 돌려서 물으니까 시와 도의 행정 범위에 따른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달리 해석이 되어서 난색스러웠다. 타이틀도 응급복구의 대응책에 관한 것을 다룰 정도밖에 안 된다, 정부에서 추경을 안 하는 정도만 윤곽이 났지 어떻게 재난기금에 대한 구성이 나와 있지 않다. 리얼리티하게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 후속예 시사탐구에서 기후 위기와 그린뉴딜 타이틀에 지스트 김준하 교수는 상당히 기후변화의 전문가로 대통령직속의 국가정책위원도 되고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준하 교수가 운영하고 있을 때 2기 기후변화 아카데미를 한 학기 동안 다녔다. 굉장히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왜 이렇게 집중된 피해가 오는지 이런 수해와 지금 현재 갑자기 엄청 덩다. 우리가 망가뜨리고 그대로 돌려받는 것에 대한 자각을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그러니까 대안책을 마련해주는 전달체계를 방송사가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겠다, 정해진 타이틀에 입각해서 캠페인 벌이고 이러 하자, 정치가 나와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휩쓸릴 게 아니라 원인이 왜 그랬고 결과

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어떤 방침으로 가면 좋겠다 등등을 시간이 허락한다면 김준하 교수를 한번 더 콜해서 탐구해서 한 시간짜리를 만들어도 좋겠다. 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삶이 숨쉬기조차 힘들다. 밤새 안녕이라는 표현처럼 8.15 광복절날 벌어진 일, 이것은 결국은 정치의 극적인 어떤 크라스트라고 봐야 한다. 종교쪽 표현이지만 그 배후에 깔린 여러 가지 때문에. 그 다음 날 김종인 비대위원장 광주 와서 무릎 꿇고 등등을 보면 현상에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시청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바른 해석, 눈을 바로 뜨이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재난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 창구를 매 보도 시간마다 날씨를 하는데 위기 상황이 발현이 되면 특으로든 뭐든 적극적으로 받아서 정시간이 안 되면 자막 나가듯이 돌려줘도 좋구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SNS를 적극 활용한다면 방송의 생생한 보도 역할을 잘할 것이다. 내레이션까지 담아서 녹화를 떠서 SNS에 날랐는데 그런 범위들이 방송에서는 서너시간, 대역섯 시간 뒀다. 시청자들이 소셜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방송이 전달하는 것만 잘해도 훌륭한 리포트, 보도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을 해본다.

○ 박미자 위원 : -<김낙곤의 시사본색>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세분 인터뷰를 봤다. 이낙연 후보나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 인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분이지만 박주민 후보는 평소 몰랐던 분이 많았을 것이다. 후보이기 때문에 한 분씩 인터뷰를 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봤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박주민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듣고 싶은 게 있었는데 김낙곤 진행자의 질문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이 필요하다. 너무 무겁고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어려운 질문, 일요일 아침에 누워서 앉아서 편하게 보는 그런 내용들 속에 그 삼사십대, 사오십대 정치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쉽게 들어보면서 시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시사본색>이 했으면 좋겠다. 정치라는 게 남의 얘기고 먼 나라 얘기인 저 같은 주부들은 뉴딜정책이, 또는 정치적인 정당의 이권 이런 거 잘 모른다. 다행히 끝에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을 질문을 했다. 친근감 있게 마무리는 됐는데 굵직굵직하고 무거운 질문보다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무엇일까 이 후보에게 뭘 물어보고 싶을까 하는 것, 시민들의 순간 전화 인터뷰나 현장의 소리 해서 당대표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 이런 디테일하게 추가를 한다면 좋겠다. 위원님이 시각화를 말씀하셨고 질문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같이 말씀드린다.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일요일 아침 정치적 식견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일반시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시사본색> 많이 보고 있고 매번 감동하면서 보고 있다.

○ 김요수 위원 : -7월 30일 <오매 전라도>에서는 ‘코로나 예방 노래’를 만든 중학생 인터뷰가 있었다. 코로나를 견디고 이겨내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방송에서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나오면 굉장히 반갑다. ‘무따래기’란 말이 있다. 남의 일에 휘방을 놓는 사람을 말한다. 어른이 되어 가지고 무따래기 짓만 하는 사람만 보면 화도 나고, 왜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나,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른답지 못하게 무따래기 짓을 하는 사람도 많다. 무따래기 짓을 하는 어



른과 달리 중고등학생들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모습이 참 좋았다.

-재즈 피아니스트 강상수 님의 인터뷰가 있었다. 한 우물을 파는 사람,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럼에도 겸손한 사람은 항상 빛이 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분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악보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보다가 재가 얼른 받아 적기도 했다. 다음에 그 말을 한 번 써 먹고 싶어서다. 뚜렷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지런히 애쓰는 사람만 어떤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 같다. 세상의 잣대는 항상 어떤 틀에 있어야 좋아하지만 보이지 않아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다는 말이 아프면서도 자유롭게 들렸다. 꿈과 자유를 찾는 사람은 늘 아름답다. 삭막한 코로나 시대에 아름다운 느낌을 받은 꼭지였다.

-광주에서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모듈하우스로 만드는 업체가 소개됐다. 아마 전국 최초일 수도 있고 세계에서든 처음 잇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 이동식 선별진료소가 광산구청 앞에 있는데 지날 때마다 항상 저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진료를 하지 궁금했다. 만드는 방법도 궁금했다. 그런데 실제 만드는 모습과 이용하는 모습, 리포터가 직접 코로나 검사를 해보는 것, 이런 것이 많은 궁금증을 해소해줘서 참 좋았다.

- 최영태 위원장 : -저도 <오매 전라도>를 보면서 코로나 상황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 둔 가정사, 엄마와 아이들 사이를 생생하게 인상 깊게 본 게 생각이 난다.
- 임철원 위원 : -이번 호우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특히 영산강과 섬진강이 범람하고 섬진강 강둑이 무너져서 강 유역에 있던 지역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 뉴스에는 피해나 이런 부분이 소개가 됐고 또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의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소개가 됐다. <오매 전라도>에서 연속으로 소개를 해서 관심있게 봤다. 10일 날에는 구례 오일시장에서 복구 현장, 11일에는 복구 산막동 복구현장, 13일에는 영산강변 쓰레기 수거현장이 연속으로 소개됐다. 수해가 나고나서 아픔에 젖어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서 많은 이해가 됐고, 이 프로그램이 유익하다는 걸 느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도입 부분에서 리포터 말이 장황하다. 리포터 멘트로써는 어마 무시한 피해라고 했는데 보이는 실제 화면은 그러지 않고 슬쩍 넘어가 버렸다. 산막동 거기는 피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단지 적십자사 몇 분이 빨래 봉사하고 인터뷰하고 너무 한가롭게 느껴졌다. 피해가 더 심한 곳이 많은데 꼭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해야 했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영산강변 쓰레기 수거작업 현장도 나왔지만 뉴스에서는 목포항이 쓰레기로 영산강 상류에서 밀려든 쓰레기로 항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다. 무안지역 영산강 둔치의 쓰레기를 포크레인으로 걷어내는 것만 보여주고 멘트하고 군청 공무원 하는 걸 보면서 많은 피해, 많은 실의에 젖어있는 피해 주민들의 정서와 약간 동떨어져 안이한 게 아닌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었다. 그런 부분 영상과 멘트가 일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 강부원 위원 : -<얼씨구당> 자막이 너무 많은 걸 지적했다. 출연자 말이 그대로 자막으로 똑같이 나온다. 질문과 답변이 똑같이 나온다. 화면을 보는 것인지, 글을 읽는 것인지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비단 자막의 과용은 <얼씨구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만 자막을 많이 쓴다고 한다. 실제로 CNN 뉴스는 브레이킹 뉴스만 몇 마디 나오고 한다. 다른 미국 프로그램 그런 걸 봤을 때도 자막이 많지 않다. 화면에 집중하게 된다. 실제 광주MBC 프

로그래머는 자막이 많아서 실제 내용에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기억이 난다. 이런 점은 해결이,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 류한호 위원 :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서 김대중 평화주간이 선포되고 여기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 MBC에서 김대중 콘텐츠를 핵심 콘텐츠로 한다는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매우 충실하게 방송으로 소화했다. 거기에 또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께서 한 특강도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이것이 뭔가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을 앞세워서 지역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지역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전략적 접근이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일이고, 또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물을 좀 더 확장하는 그래서 지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지역민들이 본받을만한 인물을 발굴하고 인물의 폭을 넓힘으로써 전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지역민의 존경과 애정을 확장시켜 가도록 하길 바란다.
- 임철원 위원 : -<시청자가 만드는 TV> 8월 9일 방영됐는데 재미있게 봤다. 일반인도 아름다운 무등산의 사계를 담아내서 만들 수 있구나 생각했다. 앞으로 시청자의 참여가 폭발해서 MBC가 편집하는데 애로를 느끼면 어쩌나 생각했다. 증심사의 사계를 드론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영상에 담았고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의 사계를 담아서 했는데 무등산의 새로운 멋을 느꼈다. 끝마무리에 규봉암 소개가 있었는데 곧 머지않아 그곳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재미있고 감명 깊게 봤다.
- 최영태 위원장 : -유튜브 방송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김대중이라는 상품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상품이라는 걸 알았다. 김대중에 대한 유튜브가 많고 클릭 수도 많다. 광주MBC가 작년 금년 서거 10, 11주기 특집도 했는데 5.18과 더불어서 김대중을 특화해서 계속해서 한다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다. 전국적으로도 김대중 하면 광주MBC를 연상하게끔 이렇게 해서 광주MBC가 전국화되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
- 박미자 위원 : -오전 출근시간 귀에 익은 전주가 들려오면 기대가 된다. 오늘은 어떤 분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다양한 계층에서 전문가들이 각자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라디오칼럼> 많이 듣고 계시나? 특히 재미난 성대모사로 즐거움까지 더해주는 분도 있다. 정해진 틀이나 주제 없이 그날그날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는 <라디오칼럼>은 짧은 시간이지만 각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서 좋고 시민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더욱 좋다. 그런데 간혹 이야기의 속도가 빠르다든가 말하기보다 읽기로 끝나는 분도 계시지만 각자 개개인의 특유의 목소리 이게 매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 잘 듣고 있다. 그날의 이슈나,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관심사가 있는데 그 짧은 칼럼 속에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하루의 시작에 있어서 이슈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들이 겹쳐진다. 조금 디테일하게 편성을 할 때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청취자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3분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감동과 시민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 이요숙 위원 : -라디오 <시선집중>으로 시작해서 <라디오칼럼>까지 듣고 출근한다. 요즘 들어 기술적인 문제가 라디오에 자주 발생한다. 특히 7월 28일 <황동현의 시선집중> 시작하는 시간대에 김두식 아나운서가 뉴스 코너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뉴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플레이팅이 되면서 다시 첫 번째 뉴스가 플레이되었다. 그

러다 보니 놀래서 스톱을 시키면서 방송사고로 이어졌다. 녹음과정에서 문제였는지 플레이하는 기술적인 문제였는지, 제가 유추해봤을 때 또 역시 휴가 기간이라 담당했던 엔지니어가 대체인력으로 되면서 오작동이었는지, 그날 상당히 시간적으로 몇 초가 아니라 1분 동안 당황했고 그게 또 여실히 방송이, 그 다음 패널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져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청취자로서 듣게 됐다. 문제는 다음 날 똑같이 비슷한 사고가 났다. 그때는 세 번째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오늘 시청자위원회 하는데 갑자기 다시 1부가 시그널과 함께 들어와 버렸다. 저희가 워낙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광주에서 많은 청취자를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인데 기술부분이 그렇다면 담당자 내지는 기술팀에서 물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방송을 준비해야 걸로 알고 있다. 오늘 들어보니 폐지가 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다. 자체 제작이 몇 건 되지 않을 텐데 굳이 기술팀에서 이른 시간이라 하더라도 뉴스랄지 다양한 보도를 시청취자에게 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중견의 베테랑 기술진이 포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력을 강화시켰으면 한다.

- 조속경 위원 : -코로나19, 장마폭우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전 국민의 우울증과 피곤함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방송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도 그리고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 보여줌으로써 빠른 해결책을 찾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어려움을 극복한 구체적인 사례들, 즉 미담을 발굴하여 보여줌으로써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격려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8월 17일에 방송된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좋은 방송이었다. 리포터가 광산구 임곡동 등 직접 수해 현장을 찾아가 수해 주민을 대상으로 생생한 리포팅을 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대구에서 광주에 왔다. 자원봉사자들이 왜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지 실감 있는 목소리를 들려줬다. 이어서 스마트팜의 수해 피해자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실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꽤나 쇼킹한 이야기였다. 복구청과 수자원공사 관계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오히려 스마트팜을 하고있는 농부가 가장 잘 아는 그래서 담양댐의 수위조절 문제를 서로가 잘 몰라서 실제 그 일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들이 몰라서 피해가 컸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래서 관계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구나 방송을 통해 들으면서 후속조치로 관계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향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하나 코로나 관련해 방송하는 것 중에 한가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인구 천만인 서울에서 1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거하고, 인구 150만 명의 광주에서 10명이 발생하는 것은 여덟 배가 차이가 나니까 실제 서울에서는 한 80명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게를 느낄 텐데 코로나19의 보도가 무슨 지역에서 몇 명 나왔다는 것에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함을,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런 보도를 지역에서 해주셨으면 한다.
- 김태진 위원 : -광주MBC 유튜브 구독자가 현재 10만 6천 명가량 된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생각이 된다. 특히 최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이하여 제작된 최영태의 김대중 특강 시리즈와 전설의 타이거즈와 같은 경우 반응 또한 상당히

좋은 걸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업로드한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조회수가 적게는 천 회 가량부터 많게는 10만 회를 넘긴 콘텐츠도 있었다. 이런 유튜브 맞춤형 콘텐츠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유튜브 채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채널의 특성에 맞춰서 업로드가 되고 있고, 채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도 제작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김대중 특강 시리즈 13회 분량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업로드가 된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업로드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콘텐츠를 업로드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체크해봐야 한다. 추가로 시청자와의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을 한건대 사장님께서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이라든지 언박싱을 할 시청자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모집해서 한다든지, 광주MBC 오행시 대회 같은 것을 생각했는데 한 발 늦었다. 오늘 언박싱 영상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유튜브 채널 내의 일부 자리를 잡게 된다면 더욱 젊은 구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 김형순 위원 : -오랜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다. 홈페이지가 상당히 시청자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다.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 콘텐츠가 너무 두서없이 나열돼서 뭐가 중요한 프로그램인지 보기가 어려웠다고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화면도 밝고 움직이는 화면과 중요한 박스들이 잘 배치되어 있어서 찾아보기가 상당히 용이했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에서는 아직 홈페이지가 외부용역을 주니까 실제 업데이트 되는 시간과 시차가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은 관여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해주고 싶다.
- 류한호 위원 :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다. 지난달에도 뉴스 검색 얘기를 했다. 뉴스뿐만 아니라 뉴스와 프로그램 검색까지도 딱 느낌에 다가오도록 돼 있지 않아서. 홈페이지 기능 중에 물론 처음에 작년에 비해 밝아지고 효율화된 건 인정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체크해서 들어가면 나오긴 하는데 밖에서 프로그램 검색해서 들어가면 제대로 안 된다. 사례를 들면 김대중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유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3년 정보가 맨 이에 몇 개 올라온다. 유사도밖에 기준이 없다. 최신 기준, 시간 기준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시 돌려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안돼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 조속경 위원 : -홈페이지가 많이 개선돼 좋다고 생각한다. 메인 롤링 배너가 나오던데 LH 광고가 나오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 최영태 위원장 : -오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오매 전라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LTE 관련 말씀 임철원 위원님 해주셨다. 일단은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 <오매 전라도> 팀이 그걸 종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본으로는 완벽하려면 LTE가 연결됐을 때 그 연결 꼭지를 뒷받침하는 아이팀에 받쳐줘야 하는데 그게 못됐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지적 고맙다. 보완하고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제작진 측에서는 현장의 피해주민들 섭외의 어려움, 코로나까지 겹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린다. 강부원 위원 말씀하신 <얼씨구당>은 유튜브 콘텐츠를 지상파에 역편성하는 건데 자세한 이

야기는 스마트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김대중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도 김대중 허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1회 김대중 평화주간이 끝났지만 우리는 71년 시민당 후보로 확정돼서 전국적인 인물로 발돋움한 9월 29일 즈음에서 광주 전남추모사업회 정진백 회장을 인터뷰 추진하려고 한다. 그분은 평생을 김대중 콘텐츠에 천착한 분이어서 이야기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박미자 위원 말씀하신 <라디오칼럼>은 사전에 녹음하다 보니 시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시의성에 맞게 송출하도록 하겠다. 방송기술 사고는 내부적으로 경위서를 받고 질책하고 재발방지하고 좀 창피한 일이다. 꼼꼼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조숙경 위원 8월 17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내부평가를 좋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관련해서 심층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조현성 보도국장 : -먼저 재난방송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다. 사실 그날 저도 물론 아침부터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말씀해주셨듯이 MBC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자막이라도 제가 직접 뽑아서 했던 노력을 한 것이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간단하게 취재기자나 취재부장이거나 사실상 탈진하다시피 일을 했다는 점을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재난방송본부장이 보도국장으로 돼 있고 재난방송을 두 차례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스태프들이나 기술스태프, 편성스태프를 종합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책임부서랄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한다는 걸 말씀드린다. 취재기자는 현장 취재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저도 많이 답답했다. 충분히 그 내용 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 제보영상 부분 말씀해주셨는데 그날 방송된 것들, 뉴스시간에 송출한 절반 이상은 시청자가 보내준 화면이었다. 며칠 전부터 카카오톡 제보 채널을 재정비했고 그날 비상단에도 시청자 제보 영상 공지를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P 기능을 이용해 재난상황을 실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사실 매뉴얼도 있지만 실제 연습도 해보니까 정말 시청자들이 원하는 재난방송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다잡아보자는 다짐을 했다.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부산에서 수해가 먼저 났는데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에서는 매뉴얼대로 했다. 공중파가 시청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게 재난방송이겠구나 싶어서 재난중계를 하지 말자, 재난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하자고 다짐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빨리 왔다. 다른 재난상황에서도 저희가 면피성 그런 보도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미처 준비가 부족했던 점 말씀드린다. 고미아 위원 말씀하신 전남방직 일신방직 꽤 오래된 공간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도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다. 장기프로젝트일 테니까 꾸준히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시사본색> 시간에 전남도 관계자가 안 나온 부분은 아쉬움이 있었다. 예상하시겠지만 부지사나 재난안전실장을 섭외를 했지만 본인들은 현장을 지키는 게 급선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재원 사회부장이 나와 역할을 했다는 점 말씀드린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 -강부원 위원 말씀하신 <얼씨구당> 자막 같은 경우 저희가 지상파를 먼저 제작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먼저 제작하고 상대적으로 모바일 베이스이다 보니 제작진에게 전달해서 조금 줄었는데, TV <얼

씨구당>을 낼 경우에는 TV에 맞게 자막을 대폭 줄여서 재제작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해주신 격려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아직도 광주MBC가 지상파 콘텐츠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한 유튜브의 아주 세세한 형태의 그런 채널과는 좀 다르다. 그러나 광주MBC만이 할 만한 콘텐츠를 조금씩 늘려가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독자, 신청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 한신구 경영기획국장 : -홈페이지 관련해서 류한호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하고 검색기능이라든가 효율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업체에 수정 보안을 요구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재난상황 시에 실시간방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회원으로 가입하면 보실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서울 MBC 콘텐츠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희 마음대로 전체를 실시간방송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조숙경 위원님 LH 광고 말씀하셨는데 수익사업으로 한 것이다.
- 송일준 사장 :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적 감사하다. 재난방송은 12년 만에 특보 편성하고 저희 역량을 발휘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걸 일일이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의 입장에서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정규편성이 돼 있다. 지역방송이어서 서울의 편성을 무시하고 재난특보를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지하게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특보를 편성해서 해보자 했다. 잘 아시겠지만 KBS와 비교해서 인력 가용이 비교가 안 된다. 보도국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했는데 여전히 시청자의 기준에서 보면 미흡하다. 다만 보도국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려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난방송TF를 확대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상파방송 편성을 뭉개고 재난방송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유튜브는 우리가 계속해서 했다. 그럴지 않아도 우리가 아차 싶었던 것을 국장들과 얘기하면서 했다. 특보가 끝나더라도 유튜브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보내준 영상,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그것만 계속 소개해주면서 다른 정보를 가미해서 하면 유튜브로 24시간 방송도 사실 가능하다. 이 부분을 놓쳤다. 그래서 보도국, 스마트미디어사업단 협조해서 다음에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데, 지상파들이 현지까지 못 가서 제대로 방송을 못 했을 때 지역에 있는 로컬 방송사, 라디오 이런 것을 통해서, 대표적인 게 구마모토에 있었던 아소산 지진 상황에서 했고, 민영방송사는 아예 24시간 뉴스 등등을 하는 채널을 인터넷상에서 운영을 한다. 채널이야 지상파로 보든 스마트폰으로 보든 PC로 보든 필요한 정보를 입수만 하면 되는 것이다. 광주에 있는 게 아무런 핸디캡이 아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구독자 10만 돌파했다고 실버버튼 받았다고 보여드렸는데 사실 수백 만 팔로우를 가진 개인 유튜브에 비하면 한숨이 나오는 수치이지만 사실 허수 없이 구독버튼을 눌러준 MBC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10만이 넘어섰다는 의미다. 제가 2018년에 왔을 때 최소한으로 해 2만 명 대였다. 그게 10만을 돌파한 것은 의미가 있다. MBC가 괄목할 만한 적은 규모 적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김철원 기자가 하는 5.18다큐멘터리,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의 오일팔도 만들어 내보내고 있다. <핑크피쉬> 대기획은 대

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상은 다 타고 있다. 트로트 같은 것도 하지만, 예를 들어 50만이 터진다고 하면 광주MBC 커버리지 시청자 수가 단순히 200만이라고 치면 2만이면 1%, 20만이면 시청률이 10%, 50만이면 25% 시청률이 되는 것이다. 요새는 과거와 달리 지상파, 유튜브, 홈피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경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수를 다 합산해야 진정한 시청률,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요새 지상파도 뉴스 같은 경우 13% 이렇게 나온다. 제가 왔을 때 3, 4% 나왔다. 보도국 기자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저도 노력했고, MBC 네트워크 전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진정성이 시청자들에게 이해가 돼서 신뢰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제가 들으면서 광주MBC 같은 시청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감사드린다.

- 최영태 위원장 : -감사드린다. 재난방송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이고 시청자들은 단순 비교하면서 또 기대치를 높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코로나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은데 공무원들이나 의료인들 지칠대로 지쳐 있는데 MBC가 그런 분들 격려해 주는 방송하면 좋겠다. 감사드린다.